

## 김제 AI 농장 감염 메추리알 100만개 유출

지난 11일 세번째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병한 전북 김제의 메추리 농장으로 부터 반경 3km 안에 있는 모든 가금류가 살처분된다. 농림부는 12일 전남 열린 가축방역협의회 회의의 결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전북도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김제 메추리 농장 반경 3km이내의 가금류 7만 6천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착수했다.

이미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메추리 농장의 메추리 29만마리에 대한 처리 작업은 발병사실 확인 직후부터 진행됐다. (관련기사 3면)

또 방역당국은 반경 3km안 '위험지역'에 이동통제 초소 18개소를 설치하고 역학조사팀을 보강, 23면 국도 일부구간 통제와 함께 인접한 농가를 대상으로 분뇨 및 열청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병한 전북 김제시 공덕면의 메추리 농장에서 최근까지 메추리 알이 대량 출하된 사실이 확인돼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전북AI 방역대책본부와 농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농장은 김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지난 8일까지 하루 평균 수만개씩의 알을 출하해온 것으로 확인돼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21일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00만개 이상의 알이 오염된 상태에서 전국 각지로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스포티지 광주생산 중단되나 中 합작법인 “내년말 생산·판매” 발표

## 기아차 광주공장 “와전된 것” 부인

기아자동차 중국 합작법인인 '동평위에다기아차'(東風悅達起亞汽車)가 오는 2010년 연산 45만대 생산계획을 갖추고 현재 광주공장 주력차종인 '스포티지'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이와 관련, 광주 시민들은 “중국에서 스포티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광주공장을 폐쇄한다는 것 아니냐”며 “광주시민이 사랑했던 기아차가 이런 식으로 광주를 배반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에 따르면 스포티지 해외생산에 관해 회사측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으

나, 회사로부터 설득력있는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기아차 중국 합작법인인 동평위에다기아차 이형근 총경리가 ‘베이징 모터쇼에서 선보인 리오를 내년 초부터 생산에 들어간 후 내년 말에는 스포티지도 생산·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소식지는 또 기아차 관계자의 말을 빌려 “스포티지는 내년 말 완공되는 동평위에다기아차 제 2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며 이같은 사실에 힘을 실었다.

노조는 “노사간 협상 제 57조 ‘자본 투자 및 해외공장’ 2항에 따르면 ‘회

사는 해외공장 신설 및 차종 투입계획을 확정할 경우 노조에 설명회를 실시하고, 해외공장 신설 및 차종투입으로 인한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조와 회사간 합의로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아직 회사의 명확한 의견을 받지 못해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스포티지 중국 생산설이 사실이라면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시민들이 기아차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아차 사주기 운동’을 통해 무한한 애정을 보여줬는데,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해외생산을 모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기아차 경영진

은 스포티지의 중국 생산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중국 내부상황에 따라 동평위 에다에서 SUV(스포츠 유틸리티차량)를 생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스포티지로 와전된 것”이라며 “노조와의 협약안이 있기 때문에 생산차종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8일 이형근 동평위 에다 기아차 총경리는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올해 중국에서 13만대, 2007년 15만대 생산계획을 갖추고 2010년 이후에는 45만대까지 생산규모를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대선후보 후원회 조기허용

## 선거 1년전부터 선거비용 제한액 5%까지 모금

###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의 정치자금 조성 방법을 확대하기 위해 후원회의 조기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선관위는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증액하고 법인·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한편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투표참여자에게 국·공립시설 이용료 면제 등 우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선 예비후보들은 선거일 1년 전부터 후원회를 설치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모금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대선후보의 경우 당내 경선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예비후자들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다는 난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는 정당 국고보조금 예산계상단가를 현행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에서 1천원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해 국고보조금을 25%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전면금지한 조항을 완화해 연간 5억 원 또는 자본총계 2% 이내 금액을 정당이나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고, 국제납세자가 납세액 중 1만원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지출해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 지정납세제도(Check Off)를 도입키로 했다.

선관위는 외교관,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파병부대원 등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지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해외여행이 예정돼 있어 투표소 투표가 불가능한 자에 한해 국외부재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 경우 80만~90만명의 유권자가 추가로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했다. /연협뉴스

### 쇠고기 원산지 표시 내달 식당도 의무화

내년 1월1일부터 영업면적 90평 이상인 종대형 식당의 경우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평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영업장 면적이 300㎡(약 90평) 이상인 종대형 음식점 중 갈비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개정안은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밝혀야 하며, 수입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유통하는 경우에도 고기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기재해야 한다. /연협뉴스



‘자선냄비’ 온정 연말이면 어김없이 등장해 세밀 온정을 전하는 ‘구세군 자선 냄비’가 12월 오후 2시 광주 총장로에 모습을 드러냈다. 자선냄비는 오는 24일(매일 오후 2시~10시)까지 광주 총장로 우체국 앞과 이프유 후문 앞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목표액은 1천 300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교통 카드로 성금을 낼 수 있는 디지털 모금이 실시된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후원회 설립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sbu.ac.kr  
전남과학대학  
www.chunnam.ac.kr

## 匠人精神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자동차세율에 대비하여  
최저세율 적용을 위한  
자동차세율 조정 서비스

자동차세율 조정 서비스  
신청서 접수부터  
자동차세율 조정 서비스  
신청서 접수부터

자동차세율 조정 서비스  
신청서 접수부터  
자동차세율 조정 서비스  
신청서 접수부터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 노무사사무소  
**김동익 크기도 광주 1st!**

12월 15일 모반사 대공개

자동차세율 조정 서비스  
신청서 접수부터  
자동차세율 조정 서비스  
신청서 접수부터

자동차세율 조정 서비스  
신청서 접수부터  
자동차세율 조정 서비스  
신청서 접수부터

307-8300